



**[(사)한국물류협회
창립20주년기념 기획인터뷰4]**

INTERVIEW

모토키 이나스카

- (사)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 협회
전무이사

「21세기는 글로벌 로지스틱스시대,
선결과제는 물류의 국제표준화!!」

일본은 국내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많이 할 정도로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된 나라이다. 일본에는 많은 물류관련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일본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JILS)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일본 물류발전을 위해 지난 10여년동안 크게 기여해 왔다.

이 협회를 이끌어 왔던 모토키 이나스카 전무이사는 오는 6월 18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사)한국물류협회가 설립될 당시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한국물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사)한국물류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기획인터뷰의 네번째로 (사)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 모토키 이나스카 전무이사를 만나보았다.

- (사)한국물류협회가 오는 9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의 물류관계자 여러분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사)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를 대표하여 귀 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한국물류협회가 창립되었을 때부터 안태호 명예회장님, 서병륜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의 많은 물류관계자분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귀 협회 창립 20주년은 저에게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년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에 한국물류협회가 크게 공헌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귀 협회의 더욱 큰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사)일본 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1992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일본 로지스틱스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단체입니다.

회원사는 일본의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정보산업 등 전 산업부문에 걸쳐 약 1,000개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류에 관한 중요 과제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하며,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시찰단 파견

이나 국제회의, 전국회의나 연구회 등을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생성된 통계 자료를 협회지에 게재하여 물류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물류협회에서 수여하는 『물류대상』처럼 저희 협회에서도 로지스틱스 대상, 물류공로상, 물류합리화상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로지스틱스 보급·촉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로지스틱스의 달』을 매년 10월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캠페인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개최하는 『LOGIS-TECH TOKYO』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의 최신 물류기계, 시스템, 정보 등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한자리에 모아, 상호교류 및 기술향상, 정보의 제공, 인적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의 모범이 될 만큼 물류선진국입니다. 최근 일본의 물류분야에서 관심있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JILS는 로지스틱스의 21세기 컨셉을 다음 2가지로 선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체 최적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실현하는 로지스틱스 시스템의 구축이며, 두 번째는 순환형 사회에 있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로지스틱스 활동의 실천입니다.



이를위해 개별 기업이나 업계의 전략과제로서 『비즈니스 로지스틱스 사회시스템과 제도』, 인프라 스트럭처(infra structure)에 관련되는 『소셜(social)로지스틱스』,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글로벌 로지스틱스』 등의 3가지를 로지스틱스 본연의 자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총 6가지로 △코스트의 저감과 서비스의 향상 △정보통신 기술의 유효활용 △환경보전과 환경부하의 저감 △안전·안심의 확보나 품질관리 △노동환경의 정비 △글로벌 네트워크화 등에 대응한 전개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물류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업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JILS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뉘어 인재육성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지스틱스 기초 강좌』는 초급수준으로 초

심자가 물류의 기초이론을 배우는 과정이며, 『물류 기술 관리자 강좌』는 중견사원을 대상으로 한 중급 수준으로 체계적인 전문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관리사 강좌』도 중급과정으로 국제물류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 경영사 강좌』는 상급과정으로 경영자의 관점에서 로지스틱스의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 중급과정인 물류기술관리사강좌는 물류관계자들로부터 평가가 매우 높아, 매년 도쿄에서 2회, 오사카에서 2회, 나고야에서 1회 등 총 5회, 6개월 코스의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연 5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에서도 로지스틱스 강의를 개설하고 있을 정도로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지난 2003년 10월부터 (사)한국물류협회의 서병륜 회장이 APLF 회장직을 맡아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나스카 전무님도 APLF 부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APLF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지스틱스의 고도화, 효율화를 배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F) 회원국 10개국이 상호 우호·제휴를 통해서, 정보교류, 공동개발, 인재육성, 표준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APLF조직을 한층 더 충실화하고 강화하여 좋은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과 일본은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간 교류 협력 등 상생의 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관계 중 물류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로지스틱스협회와 한국물류협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동반자로서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국의 물류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귀 협회와 JILS의 제휴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계 전체의 협력관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IT나 유니트 로드시스템 등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모토키 이나스카 프로필〉

1938년 12월생

1964년 3월 -아오야마(青山)대학 법합부 졸업

1964년 4월 -사단법인 일본포장기술협회 입사

1971년 11월 -일본물류관리협의회 설립 사무국 차장

1982년 4월 -일본물류관리협의회 사무국장

1989년 5월 -일본물류관리협의회 이사

1992년 6월 -(사)일본 로지스틱 시스템협회 상무이사

1995년 6월 -(사)일본 로지스틱 시스템협회 전무이사